

제3과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말씀 묵상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인지하고 누릴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지교회가 확인하고 누려야 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즉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1. ()

이단의 공격과 세속 가치의 혼란 가운데, 골로새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령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로 선포하십니다. 성경적 교회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18)

1) ()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은 곧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① ()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1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이렇듯 성도들이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② ()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지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첫째, ()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비슷하든, 관심사가 비슷하든,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 비슷하든, 어느 정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체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사도행전 13:1)

→ 예루살렘교회와 함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부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부자였던 바나바에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한때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까지 모두가 다양하고, 인간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2:14-20)

고린도서에서는 지체들의 다양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지체의 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그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체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곧 나의 희소성의 바탕이 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다면, 삶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지체됨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둘째, ()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또한 상호 의존적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살 수 없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임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고린도전서 12:21-23)

→ 손 없이 발 없고, 발 없이 손 없습니다. 서로가 다양하지만, 절대로 떨어져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 셋째, ()

다양성이 상호의존성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체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5-27)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 넷째, ()

하나임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대적은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지체의식’이 살아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1-12)

→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악한 영들과 하고,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2)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18)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2-23)

① ()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② ()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은 몸인 교회의 결정권자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질서의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를 세우시고, 의사결정을 위한 당회를 세우셔서 일하시지만, 담임목사도 당회원도 다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과 결정을 따라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2-3)

안디옥교회의 핵심리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안디옥교회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2. ()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20-22)

1)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1-2)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물든 인간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분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져 버린 소망 없는 인간들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23-25)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8-11)

2) 이 () 한다.

바울은 화목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마무리를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23)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